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식품라벨링 변경 예정

브라질사무소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식품 라벨링 변경

- 웰빙 트렌드 및 비만 위험도 증대 등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브라질 위생감시국(이하 ANVISA)에서는 빠르면 올해부터 식품 라벨링 방법을 변경할 예정이다.
-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는 2014년부터 식품 라벨링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의학협회에서는 설탕, 지방, 소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형태의 라벨링 방법을 제안했다.

각 단체의 디자인 제안방향

- 유력한 디자인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브라질 소비자 보호기관(IDEC)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는 정면 경고를 하는 검은색 삼각형 형태를 띠는데, 검은색 팔각형 모양 라벨을 사용하는 칠레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이다.
- 두 번째는 브라질 식품산업협회(ABAIA)와 산업연맹(CNI)에서 제안한 것으로 영국과 에콰도르에서 사용하는 라벨링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건강에 해로운 요소의 수량 경고를 녹색, 노란색, 적색의 신호등색으로 표시한 모델이다. 제품의 당류, 지방, 나트륨의 양을 라벨 전면의 색상으로 경고하며, 각 성분은 1회 섭취량과 2,000 칼로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라벨 디자인 선호도 조사결과

- 브라질 소비자 보호기관(IDEC)에서 소비자 1,6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검은색 삼각형 모양의 라벨이 더욱 신뢰감을 준다는 의견과 함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신호등 모델의 경우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현재 라벨링과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 아직 구체적인 모델과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수출업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현지 바이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www.bloomberg.org(칠레 식품 라벨링), www.bbc.com(영국 식품 라벨링), exame.abril.com.br/brasil